

광주·전남 장기요양급여 탈락률 ‘서울 2배’

각각 38.5%·40.9% 전국 상위권...등급 판정 객관성·지역편차 개선 대책 필요

광주·전남지역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탈락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탈락률 편차가 크다는 것은 등급 판정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정책예산처가 13일 발표한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율인 탈락률(2012~2014년 기준)은 광주(4위)와 전남(2위)이 각각 38.5%·40.9%로 확인됐다. 이는 탈락률이 가장 낮은 서

울의 18.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광역단체 중 전북이 4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경남(39.2%), 광주, 부산(34.9%) 등의 순이었다.

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의 생활을 돕는 제도다.

수급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 범위에 대해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역별로 탈락률 편차가 크다는 것은 등급 판정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공단이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등급 판정시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요양기관의 경우 최근 4년간 한해 평균 785곳이 신설되고 537개가 폐업하는 등 신설과 폐업이 잦아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평가해 평가 결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가산해 지급하지만 반면 평가가 나쁜 기관에는 지급액을 감산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재가요양 기관의 4분의 1, 시설요양 기

관의 5분의 1은 2년 후 평가에서 다시 E등급을 받고 있어 평가 뒤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장기 재정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의 2008~2014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38.1%로, 수입증가율인 29.8%보다 높다. 이는 수가 인상보다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고령화가 더 가속화돼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투기세력 ‘먹잇감’ 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가 3.3㎡당 127만원...일반 상업용지의 1/5 수준

건물 지어 2000여만원에 되팔아...무분별 상가 들어서

천정부 ‘지식산업센터 근린시설 30% 가능’ 악용 지적

산학연 기관 입주를 위해 마련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투기세력에 의해 상가로 둔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클러스터에서 무분별하게 상가가 조성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따르면 전국의 혁신도시에는 이주 공공기관 관련 업체나 연구소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클러스터 용지가 조성돼 상업용지나 근린용지보다 훨씬 싼 값에 공급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의 경우 평균 분양가는 3.3㎡당 127만원으로 일반 상업용지(3.3㎡당 646만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천 의원은 “싼값에 판매된 클러스터 용지에 건물을 지어 되파는 가격은 3.3㎡당 2000여만원으로 일반 상업용지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훨씬 비싸게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민원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러스터 용지를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사들여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면서 30% 한도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종 제한이 없어 식당·마트·영화관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천 의원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이런 상황은 경남 혁신도시 등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식산업 센터에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고, 상업 용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업종이나 시설 제한이 필요하다”며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 분양권 회수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女超

전남도 8·9급 합격자 943명 중 514명 여성

전남도는 2015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11일 도 누리집(www.jeonnam.go.kr) ‘시험정보’에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1009명 모집에 1만1713명이 접수해 평균 11.6대1을 기록했다.

지난 6월 27일 데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8047명(응시율 68.7%)이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943명을 선발했다.

여성 합격자가 514명(54.5%)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 합격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직렬별로는 행정 522명, 시설 122명, 농업 62명, 해양수산 26명 등 18개다. 최종 합격자 가운데는 사회적 약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별도 모집한 장애인 32명, 저소득층 33명이 포함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8명(61.3%)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314명(33.3%), 40대 이상이 51명(5.4%)이다.

평균 연령은 29.2세로 지난해 30.3세에 비해 1.1세가 낮아졌다. 최고령 합격자는 일반농업에 응시한 55세 남성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일반행정 저소득층에 응시한 18세 여성이다.

이번 시험 최종 합격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스네자나 토도로바 불가리아 기자협회장 일행 10여명이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 문화전당 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들은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구길용) 초청으로 문화전당을 찾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해외 언론·공연관계자 문화전당 방문 잇따라

해외 언론들이 잇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현장 취재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13일 “스네자나 토도로바(Snezhana Todorova) 불가리아 기자협회장 일행 10여명이 문화전당 시설을 둘러보고 전당의 비전과 역할 등을 취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구길용) 초청으로 문화전당을 방문했다.

스네자나 토도로바 불가리아 기자협

회장과 민영방송 노바(Nova)TV 기자 등은 문화전당 관계자의 안내로 민주평화교류원과 어린이문화원을 둘러봤다. 이어 문화정보원의 아시아문화예술 13개 전문 아카이브전과 문화창조원 복합4관의 ‘신화와 근대, 비껴서다’전을 관람했다. 이들은 예술극장에서 현재 진행중인 브렛 베일리의 ‘B전시’를 관람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아세안기자단 10여명이 문화전당을 방문해 전시·공연 프로그램 등을 취재했다. 취재단에는 국영방송 미얀마 인터내셔널 티비(Myanmar

International TV), 베트남 주요 일간지 티엔 흥(Tien Phong), 싱가포르의 공영방송 싱가포르 미디어 코퍼(Singapore Media Corp) 등 유력 언론사 취재팀이 포함됐다.

문화전당을 찾는 해외 공연예술계 관계자들도 부쩍 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아시아와 유럽, 미주 25여 개국 80여명의 공연예술 전문가 등이 문화전당에서 공연예술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예술위 편파 지원 ‘도마 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11일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해온 문화창작 지원 및 연구 지원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예술가에 대한 지원 배제 압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재정지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자 ‘모든 국민은 불쌍하다’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담은 ‘개구리’로 인해 문화예술위의 연구 지원 ‘창작산실’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학 각 장르별 우수작품 100편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애초 뽑은 102명의 작품이 조정 과정에서 70편으로 축소됐고, 이 과정에서 희곡 분야 1순위의 이윤택 작가의 ‘꽃을 바치는 시간’도 탈락했다고 도 의원이 지적했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문화예술위 지원을 받았던 이 작가의 탈락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문화예술계 내에서도 정치적 이슈화에 골몰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문제”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penfoot@kwangju.co.kr

윤 시장 UEA 정상회의 참석

윤장현 광주시장은 조영표 의장 등 광주시의원 6명과 함께 15일부터 필리핀 일로일로시 사라비아 마노 칸벤에서 열리는 ‘제3회 UEA(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출국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시 UEA 운영본부와 일로일로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2011년 10월 UAE광주정상회의의 뒤 3번째이며, 광주시는 샌프란시스코시, 샌안

토니오시와 함께 공동 의장 도시이기도 하다.

이 정상회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 개발 체제(CDM)를 위한 가이도북 및 사례조사, UEA 도시인증프로그램 및 UEA 도시상 수여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망과 유망 투자 지역 대분석

30~50대 직장인을 위한 속시원한 부동산 투자 특강

장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5. 9. 15(화)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교시 2015년 이후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변화 및 트렌드별 투자 전략 대응법

2교시 (1) 아파트의 향후 시장 흐름에 따른 미래가치 분석 (2) 리스크를 피하는 직장인들의 제대로된 실전 부동산 투자법 공개

3교시 (1)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핵심 부동산 및 토지 투자처 매물 공개 및 수익성 분석 (2) 광주 수익형 부동산 선택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김영표